

# 부산의 삼한·삼국시대 고고학적 연구의 회고와 전망

신 경 철(부산대학교 고고학과)

홍 보 식(부산박물관 학예관)

## 目 次

### I. 머리말

### II. 조사성과와 연구의 흐름

1. 1960년대 이전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5. 2000년대

### III. 과제와 전망

## I. 머리말

삼한·삼국시대의 부산과 관련된 기록은 매우 적다. 『三國志』 魏書 東夷傳 弁辰條의 “弁辰瀆盧國”과 “其瀆盧國 與倭接界”라는 기록과 『三國史記』 列傳 中 居道傳에 ‘于尸山國과 居柒山國이 이웃하고 있다’는 기록, 『三國史記』 地理志에 ‘동래군은 본래 거칠산군으로 경덕왕이 동래군으로 고쳐 지금도 이에 따른다’는 기록 등이다.

위의 기록들이 삼한·삼국시대의 부산과 관련된 내용인데, 당시에 쓰여진 문헌은 삼국지 뿐이고, 이외의 기록은 고려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 삼국지는 3세기대에 쓰여진 역사서인데, 국명과 아주 소략한 당시의 생활문화를 기록하여 해당시대의 구체적인 생활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 역사서에 기록된 독로국(거칠산국·장산국)의 문화는 발굴조사 자료를 구성하여 이해할 수밖에 없다.

개항 이후 현재의 서구·중구·동구 일대에 시가지가 형성된 부산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피난민이 유입되고 시가지가 확대되면서 무계획적으로 주택과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매장 문화재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라져 갔다. 1960년대 이후 몇몇 유적에 대한 부분적인 조사가 진행되었고, 본격적인 조사는 198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야 가능하였다. 80년대 이후 부산지역의 삼한·삼국시대 유적에 대한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조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가 획득되면서

물질자료를 통해 당시의 문화내용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주변 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는 등 부산지역의 삼한·삼국시대의 역사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즈음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되짚어보고 성찰하는 계기도 필요하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유적조사와 물질자료를 이용한 연구성과를 시기별로 일별하고, 향후의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조사성과와 연구의 흐름

### 1. 1960년대 이전

해방 이전 시기의 삼한·삼국시대 유적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1930년 동해남부선 철도공사 때, 현 동래 낙민동의 동래역사 남서쪽의 구릉 끝에서 4조의 옹관이 알려진 정도였다. 이 때 알려진 옹관은 층위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적갈색연질옹 2개를 맞붙인 합구식으로 보고되었는데,<sup>1)</sup> 정확한 구조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토된 유물의 존재도 현재 알 수 없다. 그리고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일제시기 때 전 연산동고분군에서 차양주·관모형복발주·삼각판정결판갑·찰갑 등의 갑주류가 도굴되다시피 하여 출토되었는데, 현재 일본의 동경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sup>2)</sup>

1) 藤田亮策, 1930, 「東萊の甕棺出土」 『靑丘學叢』 2.

2) 穴澤口禾光・馬目順一, 1975, 「南部朝鮮出土の鐵製鋌留甲冑」 『朝鮮學報』 76, 朝鮮學會.

해방 이후, 우리의 고고학도 일제로부터 벗어나기는 하였지만, 정치적 불안과 재정 빈곤 등으로 인해 60년대까지 매장문화재의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일부 특정 지역에 치우쳤다. 이러한 당시의 분위기는 부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유적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한 동래패총(낙민동패총으로 불리기도 하나 사적명은 동래패총으로 되어 있으므로 동래패총으로 부름)의 발굴조사는 부산의 삼한시대 생활유적에 대한 최초의 조사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한 동래패총 발굴조사는 「원삼국시대」 문화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 남해안 일대에 분포하는 패총유적에 대한 5개년 계획에 의해 이루어졌다. 발굴조사는 모두 4차례(1차 조사 : 1967년 6월 16일~7월 2일, 2차 조사 : 1968년 3월 24일~4월 3일, 3차 조사 : 1968년 10월 26일~11월 4일, 4차 조사 : 1970년 6월 15일~6월 24일)이루어졌는데,<sup>3)</sup> 조사 대상지는 현재 사적 192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구릉의 서쪽 부분이었다. 4차례의 조사에서 수개의 패각층과 단야로로 추정되는 철 생산 유구 1기, 그리고 많은 양의 인공 유물과 자연유물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 때의 조사는 매우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범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조사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출토된 유물의 출토 위치를 조사 당시의 지표면에서 ○○cm 아래 등으로 표현하여 패총의 층위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조사 방법도 과학적이지 못하였다.

조사 내용과 90년 후반의 조사에 의해 사적지의 서쪽 부분

3) 國立中央博物館, 1998, 『東萊樂民洞貝塚』國立博物館 古蹟發掘調查報告 第28冊.

은 대부분 생활쓰레기를 버린 공간이었음이 확인되었는데, 60년대 조사의 대부분은 쓰레기 퇴적지에 대한 조사였고, 이 조사를 바탕으로 사적으로 지정된 구역은 패총이란 아주 부분적인 공간의 보존으로 그칠 수밖에 없었고, 당시의 생활문화를 구명할 수 있는 더 중요한 공간은 이후 주택조성이란 미명하에 파괴되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을 연출하게 된 부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가 조사 종료 후에 공표되지 않고 최근에 이르러 공표됨으로써 조사된 자료가 사장되어 삼한시대 부산의 일상문화 연구에 치명적인 장애를 주었다.

이 시기의 중요한 조사성과의 하나는 동래 복천동고분군의 존재 확인이었다. 주택공사에 의해 발견된 동래 복천동 1호묘에 대한 수습조사가 1969년 9월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행해졌다.<sup>4)</sup> 이 때 행한 복천동 1호묘의 존재는 이후 복천동고분군에 대한 조사의 시발점이 된 중요한 사건이었다. 비록 20여 일간의 짧은 조사 기간이었지만, 수혈식석곽묘란 묘제와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어 삼국시대 부산 문화를 검토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였다. 이 1호묘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이후 삼국시대의 장신구 연구에 있어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 2. 1970년대

1970년 4월 초 복천동고분군의 구릉 말단에 있는 범륜사 경내에서 5세기 후반대의 소형 수혈식석곽묘 1기가 동아대학

4) 金東鎬, 1971, 『東萊福泉洞第1號古墳發掘調查報告』1970年度古蹟調查報告, 東亞大學校博物館.

교 박물관에 의해서 조사되었고,<sup>5)</sup> 1970년과 71년의 2년 사이에 현 북천동고분군이 있는 구릉 일대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사에 수반하여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9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다.<sup>6)</sup> 그리고 1974년 9~10월 사이에 구릉 아래쪽의 동쪽 경사면에서 3기의 고분이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의해서 조사되었다.<sup>7)</sup> 이들 몇 차례의 조사에 의해 북천동고분군에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란 구조가 다른 묘제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묘제들은 어느 정도의 시차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1호묘에서 출토된 유물과 더불어 북천동고분군 일대에 다수의 고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출토된 유물 중에는 갑주와 철정이 다수 확인된 것도 중요한 성과이었다. 그러나 조사된 유구와 출토된 유물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성격 구명 및 이를 소재로 한 문화 내용 등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71년 12월 3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 오륜대고분군 발굴 조사는 부산지역에서 삼국시대 고분군으로는 최초의 조사로서 5세기 후반대의 부산 문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sup>8)</sup> 오륜대고분군의 조사를 통해 수영천 수계에 중소형 고분군의 존재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적의 유구배치도 작성에 있어 그리드기법을 적용한 우리나라 최초의 발굴조사 유적으로 알려졌다. 20일이란 짧은 기간에 30여기에 이르는 많은 수의 분묘를 조사하여 조사가 철저하

- 
- 5) 金東鎬, 1975, 『釜山漆山洞第1號古墳發掘調查報告』 『文化財』 8, 文化財管理局.
  - 6) 金東鎬, 1984, 『東萊 福泉洞 古墳發掘調查報告』 『上老大島』 古蹟調查報告 第8冊, 東亞大學校博物館.
  - 7) 禹順姬·金枝秀, 2001, 『東萊 福泉洞 鶴巢臺古墳』 釜山大學校博物館 研究叢書 第26輯.
  - 8) 金廷鶴·鄭澄元, 1973, 『五倫台古墳群發掘調查報告書』 釜山大學校 博物館 遺蹟調查報告 第1輯.

지 못하고, 또 보고내용도 간략한 개보의 수준에 머물러 향후의 유적 조사와 연구에 큰 기여는 되지 못하였다.

오륜대고분군 발굴조사에 이어 1972년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에 걸쳐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북구 화명동고분군이 조사되었다.<sup>9)</sup> 화명동고분군의 조사에서 축조상태가 매우 엉성한 구조의 수혈식석곽묘가 확인되었는데, 조사 당시는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석곽이 시원기의 수혈식석곽이란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고, 4세기 이전의 가야 고분으로 이해하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이 화명동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류 중 부산·김해지역의 특징적인 소위 금관가야양식토기인 외절구연고배와 파수부노형토기가 확인되었지만, 이 토기들이 부산·김해지역의 특징적인 토기라는 이해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1973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한 조도패총의 조사는 부산지역의 삼한 후기 생활문화를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패총은 2개 구역으로 구분되었는데, 현재 해양대학교 본부건물이 자리잡고 있는 북쪽의 제 I 지구 패총이 삼한·삼국시대에 형성된 것이었다.<sup>10)</sup> 패총은 비교적 정연한 3개의 층으로 구분되고, 무문토기·와질 토기·연질토기 등의 토기류와 골각기류·철기류가 출토되었다.

이외에도 패류·어류·포유류·조류 등 다량의 동물유체가 출토되어 당시 해양민들의 생업환경과 경제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패총 I 층 사이에 완전한 상태의 인골 1구가 확인되었는데, 170cm 내외의 성인으로 추정되었

9) 金廷鶴鄭澄元, 1979, 『釜山華明洞古墳群發掘調查報告書』釜山大學校 博物館 遺蹟調查報告 第1輯.

10) 韓炳三李健茂, 1976, 『朝島貝塚』國立中央博物館.

다. 두개골 우측 가까이에서 경석이 출토되었고, 왼쪽 팔 옆에 인골과 나란하게 철검 1점이 놓여 있었고, 발치 부근에는 골촉 1점, 철촉 3점이 놓여있었다. 돌들은 축조상태가 정연하지 못하고 주위에 둘러져 있는 것으로 보아 圍石墓로 추정되나 토광묘일 가능성도 있다. 패각층에 주검을 매장하는 행위가 기원후까지 존속하는 점을 볼 때, 매장지와 매장방식이 유적이 형성된 자연환경에 크게 좌우되는 점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었다.

이상이 1970년대에 이루어진 삼한·삼국시대의 유적조사 내용이다. 이 시기에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부산시내 각지에 삼한·삼국시대의 유적이 존재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북천동고분군이 대규모의 고분군이란 사실을 인식하여 80년대의 계획조사를 하게 된 기초가 된 점은 주지할만하다.

그러나 조사된 성과를 반영한 연구 논문이 거의 발표되지 않은 점은 당시의 학계 수준에서는 당연한 결과일지는 모르지만, 유적조사 종료 후 곧바로 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아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전공자가 거의 없었던 당시 학계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유적의 규모 또는 유구의 수에 비해 조사 기간이 매우 짧아 제대로 조사되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 예를 들면, 20일의 기간에 30기의 분묘를 조사한 오륜대고분군 또는 7일간 7기의 분묘를 조사한 화명동고분군이 그 대표적인 예로서 당시 매장문화재 조사의 일면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다.



## 3. 1980년대

80년대는 부산의 삼한·삼국시대 연구에 있어 하나의 큰 획기가 이루어진 시기였는데, 그 중심에는 동래 복천동고분군에 대한 수차례의 계획조사와 노포동분묘군 및 연산동고분군의 조사가 있었다. 그리고 이전 시기에 이루어진 조사내용과 80년대에 이루어진 상기의 유적조사를 토대로 하여 고고자료에 기초한 체계적인 삼한·삼국시대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는 중요한 연구가 진행된 것도 이 시기의 주요한 성과이었다. 이외에도 중·소형 고분군에 대한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유적들이 현재 연구성과의 토대가 된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70년대까지 부산지역 유적조사가 국립박물관이 중심이 되었으나 80년대에 들어오면서 부산에 소재한 기관들이 유적조사를 주도한 점도 특기할만하다. 특히 부산대학교 박물관과 부산박물관이 주축이 되어 복천동·화명동·당감동·생곡동·내성·덕천동·두구동·임석·화명동 등 삼국시대의 고분군이 다수 조사되어 삼국시대 부산지역의 매장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수의 자료가 확보되었다. 이 확보된 자료에 대한 정리와 분석을 통해 당시의 역사와 문화내용,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조사에서 획득한 다양한 유물이 부산박물관과 부산 소재 대학 박물관에 전시되어 일반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점도 큰 성과의 하나였다.

동래 복천동고분군은 1980년도에 들어와서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본격적으로 조사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후

반, 복천동고분군이 있는 구릉 일대를 주택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1979년에 복천동고분군에 대한 매장문화재 확인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조사에서 구릉에 삼국시대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많은 수의 고분이 있음을 확인하고 다음해인 80년 10월부터 81년 2월까지 제1차 조사가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실시되었다. 1차 조사에서 5세기대의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 등 모두 27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다. 5세기 초의 묘제는 목곽묘로서 구릉 아래에 조영되었고, 정상부 가까이부터 수혈식석곽묘가 조영되어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의 선후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조사 후반기에는 명확하게 인식하였지만, 조사 초기에 약간의 혼동이 있어 주·부곽으로 구성된 하나의 고분임에도, 주곽과 부곽에 각각 별도의 호수를 부여하였는데,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연구자와 일반인들에게 혼란을 주어왔다.

조사 결과 구릉 정선부를 중심으로 각각 별도의 묘광을 마련하여 주곽과 부곽으로 구분한 대형묘가 조영되고 사면에는 부곽이 있어도 규모가 커지 않거나 또는 부곽이 없는 단독묘가 조영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대형묘의 경우 주인공의 주검이 놓이는 바닥에 칠정을 놓는 독특한 매장습속도 확인하였다. 수혈식석곽묘의 경우, 석곽의 평면형태가 장방형에서 세장방형으로 변화하면서 부곽이 사라지는 변화가 파악되었다.

그리고 1차 조사에서는 다종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특징적인 것은 가야토기에서 신라토기로의 전이와 신라토기의 점진적인 증가에 의한 부산지역의 신라화 과정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계갑·단갑·복발주 등의 방어용 무구, 마주·등자·안교·재갈 등의 마구류, 철

축·환두대도·철모 등의 무기류가 다량 출토되어 5세기대의 무기·무구체제와 제작기법에 대한 논의는 물론 이들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북천동고분군의 1차 조사는 북천동고분군뿐만 아니라 부산의 역사와 문화의 구명은 물론 삼국시대 남부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구명할 수 있는 중요 유적으로 인식되어 1981년 6월 9일 사적 제273호로 지정되고, 주택조성사업이 철회되고, 유적의 보존과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1986년에는 1차 조사 때 마무리 못한 31-32호묘에 대한 추가조사와 39·40호묘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sup>11)</sup> 1·2차 조사는 5세기대의 고분에 국한되어 4세기대의 양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고, 고분군의 정화계획에 의해 점진적인 토지매입이 진행되어 1차 조사 구역의 남쪽 구간에 대한 조사가 1989년 9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부산대학교 박물관과 부산박물관의 공동으로 실시되었다.<sup>12)</sup> 3차 조사에서 4세기대의 목곽묘가 다수 조사되어 4~5세기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1983년 처음 그 존재가 알려진 노포동분묘군은 1984, 12~85, 1월과 85, 10~86, 1월의 2차례에 걸쳐 부산시립박물관과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정식 발굴조사가 행해졌는데, 삼한시대에서 삼국시대로 전환하는 과도기인 3세기 후반~4세기 전반대의 목곽묘 45기, 옹관묘 6기 등 총51기의 분묘가 확인

11) 全玉年·李尙律·李賢珠, 1989, 『東萊福泉洞古墳群 第2次 調査概報』釜山大學校 博物館.

12) 釜山大學校博物館, 1990, 『東萊福泉洞古墳群 第3次 調査概報』釜山大學校 博物館.  
송계현·하인수·홍보식·이현주, 1992, 『東萊福泉洞 53號墳』釜山廣域市立博物館.  
이현주, 2001, 『東萊 福泉洞古墳群-52-54號-』福泉博物館.

되었다. 주 묘제는 목곽묘이고, 옹관묘는 목곽묘 주위에 만들어진 배묘이다.<sup>13)</sup> 목곽묘는 길이가 5m 이하인 중·소형묘이고, 평면형태가 장방형인 것과 세장방형인 것으로 구분되었다. 부장유물 배치에 명확한 규칙성은 보이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토기류는 피장자의 발치부분에 배치되었고, 철기류들은 피장자의 좌·우측에 배치하였는데, 이와 같은 유물의 부장양상은 이 시기 영남지역 3세기대 분묘의 공통적인 부장배치임을 시사하였다.

목곽묘와 옹관묘에서는 각종의 토기류와 철기류 및 장신구류가 출토되었다. 토기는 와질·연질·도질제 모두가 있는데, 와질제가 대부분이고, 연질제와 도질제는 소량이다. 기종은 노형토기·단경호·대부직구호·고배·옹·사이부직구호·완·뚜껍 등이 있다. 철기류로는 축·부·도자·모·대도·검 등이 있다.

노포동분묘군에서 절대연대 자료를 알려주는 자료는 출토되지 않았지만 출토된 유물과 분묘구조는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전반까지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노포동분묘군의 자료는 80년대 초에 한국 고고학계의 가장 핵심적 논쟁의 하나였던 와질토기의 존부 및 와질토기시대의 설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부산지역 유일의 고총고분이 있는 연산동고분군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전무하였는데, 1988년도에 2기의 대형 고분이 조사되었다. 이 연산동고분군은 일제시대에 철제 갑주류들이 출토되어 고대의 한일관계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13) 尹炳鏞·宋桂鉉, 1988, 『釜山老圃洞遺蹟Ⅱ』釜山直轄市立博物館.  
釜山大學校博物館 1988, 『釜山老圃洞遺蹟』

로써 일찍부터 국내외 학계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왔다. 그래서 이 고분군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1988년도에 경성대학교 박물관에서 8호분을, 부산여자대학교(현 신라대학교) 박물관에서 4호분을 각각 조사하였다.<sup>14)</sup>

4호분보다 구릉 위쪽에 위치하는 8호분은 분구 규모가 직경 17~22m 이고 분구의 형태는 장타원형에 가깝다. 이 분구의 중앙부분에 등고선과 같은 방향으로 길이 12.4m, 너비 5.3m의 장방형 묘광을 어느 정도 파고, 묘광 내에 다시 50cm 가량의 독을 두고 주·부곽의 묘광을 일직선으로 판 후 하나의 긴 석곽을 축조하여 주곽과 부곽을 마련하였다.

구릉 아래에 위치한 4호분은 분구의 규모가 직경 12.7~4m, 높이 2.16m이고 형태는 타원형이다. 석곽은 묘광의 벽에 기대어 할석을 쌓아서 만들었는데, 석곽 중앙부에 할석으로 격벽을 만들어 주부곽을 구분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8호분과는 달리 주부곽의 구분 없이 하나의 긴 석곽을 만든 후 가운데 격벽을 별도로 쌓은 것이다.

4호분과 8호분에서는 고배·기대·대부장경호·원저단경호·개 등의 토기들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신라토기이다. 철기류로는 4호분에서 성지구편(盛矢具片)·금동금구편(金銅金具片)·철도자·철촉·유자이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8호분에서는 주곽에서 계갑·대도편·철촉·철부 등의 무구류와 금동장행엽·등자 등의 마구류 및 유리제의 경옥 등이 주피장자의 목부분인 남쪽에서 출토되었고, 부곽에서는 다수의 단갑편이 출토되었다.

14) 부산여자대학박물관 1991 『釜山蓮山洞4號墳發掘調査報告』, 신경철, 1987 「釜山蓮山洞8號墳發掘調査概報」, 『釜山直轄市立博物館 年報』第10輯,

연산동 4·8호분의 조사에 의해서 연산동고분군에 대한 부분적인 정보 획득은 물론 삼국시대 부산지역 지배세력 계통, 신라로의 편입과정과 양상, 수혈식석곽묘의 변천 등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이외에도 부산시내 각지에서 중·소형묘로 이루어진 고분군이 조사되었는데, 덕천동고분군(1981. 1. 27~4. 30),<sup>15)</sup> 당감동고분군(1981. 10. 16~11. 16),<sup>16)</sup> 반여동고분군(1986. 8. 12~9. 14, 1988. 11. 24~12. 31),<sup>17)</sup> 두구동 임석고분군(1987. 9. 10~11. 13),<sup>18)</sup> 생곡동 가달고분군(1989. 12. 18~1990. 2. 17),<sup>19)</sup> 내성유적(1989. 11. 25~12. 24)<sup>20)</sup> 등이 그 예이다. 이 중·소형 고분으로 이루어진 고분군의 조사에 의해 중심 고분군인 복천동고분군의 조영 집단과 주변의 중·소형 고분군을 조영한 집단과의 관계는 물론 삼국시대 부산지역 거주 집단의 규모와 구성을 논의할 수 있는 자료 일부가 확보되었다.

복천동고분군을 비롯한 중요한 유적의 발굴조사 성과를 토대로 하고, 여기에 주변지역의 발굴조사 성과를 반영하여 고고자료에 의한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구명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복천동고분군의 조사에서 획득된 다양한 정보는 삼국시대 부산의 역사와 문화 규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물질문화 구명과 한·일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명의 과제를 주었다. 복천동고분군에서 조사된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의

15) 釜山直轄市立博物館, 1983, 『釜山德川洞遺蹟』

16) 釜山大學校博物館, 1983, 『釜山堂甘洞古墳群 I』.

17) 林孝澤·郭東哲, 2005, 『釜山蟠如洞遺蹟』 東義大學校博物館學術叢書 11.

18) 朴志明·宋桂鉉, 1991, 『釜山 杜邱洞 林石遺蹟』 釜山直轄市立博物館.

19) 宋桂鉉·洪潛植, 1993, 『生谷洞 加達古墳群』 釜山直轄市立博物館.

20) 宋桂鉉·河仁秀, 1990, 『東萊福泉洞萊城遺蹟』 釜山直轄市立博物館.

구조와 변화는 영남지역의 묘제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많은 양이 출토된 토기에 대해 10년 단위의 편년이 이루어져 북천동고분군에서 출토된 물질자료의 시간적 위치를 부여하고, 동시에 신라양식토기와 가야양식토기의 성립 시기와 역사성 및 새로운 신라토기의 편년안이 제시되었다.<sup>21)</sup> 뿐만 아니라 갑주와 마주 등의 무구와 마구에 대한 연구의 단초를 얻 것도 북천동고분군 조사의 주요한 성과의 하나였다.<sup>22)</sup>

1980년 신경철과 최종규 양인에 의해 삼국이 성립되는 이전 시기의 문화상과 시대적 위치에 대한 새로운 안이 제시되었다. 양인은 그동안 원삼국시대 또는 김해기, 웅천문화기로 불리어오던 문화기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그 대안으로 와질토기문화 또는 와질토기시대론을 주창하였다.<sup>23)</sup> 김해식토기라는 용어는 막연할 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토기와 구분에도 혼란을 주므로 보다 구체적인 분석에 근거한 새로운 토기양식의 정립을 위해 제안된 와질토기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개념화 하였다.

와질토기란, 니질성 점토사용, 회전판을 이용한 성형, 타날·연마 정면, 900℃ 내외의 저화도 밀폐요 소성, 회백색·회흑색·회백색의 기면 색조 등을 특징으로 들고, 이러한 특징의 토기는 낙랑의 한대 제도술의 영향으로 남부지역에서 성립되었고, 이 와질토기가 원삼국기의 표지적인 토기임을 주

21) 鄭澄元·申敬澈, 1982, 『東萊福泉洞古墳群 I』 釜山大學校博物館.

22) 宋桂鉉, 1988, 「三國時代 鐵製甲冑의 研究-嶺南地域 出土品을 中心으로-」 慶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3) 申敬澈, 1982, 「釜山慶南 出土 瓦質系 土器」 『韓國考古學報』 12, 韓國考古學會.  
崔鍾圭, 1982, 「陶質土器 成立前夜와 展開」 『韓國考古學報』 12, 韓國考古學會.

창하였다.<sup>24)</sup> 이 와질토기론은 타날이라는 요소를 근거로 설정한 소위 김해식 토기의 애매모호성과 불철저한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토기와 원삼국시대의 토기문화를 구분하고, 토기의 변천을 상정한 획기적인 견해로 우리나라 고고학의 발전에 하나의 획을 긋는 것이었다.

와질토기론이 발표된 이후, 와질토기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와질토기를 긍정하면서도 와질토기는 분묘 부장품이고 일상토기는 아니라는 것,<sup>25)</sup> 와질토기는 영남지역에만 분포하는 지역적인 토기로 한정하는 견해,<sup>26)</sup> 또는 타날문토기,<sup>27)</sup> 회색(혹색·회흑색)연질토기,<sup>28)</sup>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와질토기론을 주창한 당시에 이 와질토기를 제시한 양인도 와질토기는 영남지역 특유의 토기문화로 정의하였으나 한강 이남의 모든 지역에 분포하기 때문에 와질토기가 영남지역 특유의 토기가 아니라 한강 이남지역의 보편적인 토기이기 때문에 이는 곧 철회되어야 했다. 그리고 와질토기시대라는 시대명을 주장하기 위해 당시 제시된 대부분의 자료가 신고 또는 채집된 토기라는 약점이 있었지만, 8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기원전후~4세기대의 목관묘와 목곽묘의 조사에 의해 와질토기의 존재가 더욱 명확하게 부각되었고, 노포동분묘군의 조사 성과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4) 申敬澈, 1982, 「釜山慶南 出土 瓦質系 土器」 『韓國考古學報』 12, 韓國考古學會.

1989, 「三韓三國統一新羅時代의 釜山」 『釜山市史』 1卷, 釜山直轄市史編纂委員會.

25) 金元龍, 1983, 「所謂 ‘瓦質土器’에 對하여」 『歷史學報』 99-100合輯, 歷史學會.

26) 崔秉鉉, 1998, 「原三國土器의 系統과 性格」 『韓國考古學報』 38, 韓國考古學會.

崔盛洛, 1988, 「原三國期 土器의 變遷과 問題點」 『嶺南考古學』 5, 嶺南考古學會.

27) 朴淳發, 1989, 「漢江流域 原三國土器의 樣相과 變遷」 『韓國考古學報』 23, 韓國考古學會.

28) 李盛周, 1991, 「原三國時代 土器의 類型系譜編年生産體制」 『韓國古代史論叢』 2, 韓國古代社會研究所.



와질토기론과 더불어 고고자료를 토대로 한 삼국시대 남부 지역의 시기 설정과 갑주와 마구의 계통과 남부지역으로의 파급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복천동고분군의 편년은 그 중심에 있었다. 복천동고분군 10-11호묘 출토 토기를 신라토기로 규정하고, 10-11호묘부터 복천동고분군에 신라토기가 완전히 정착되는 것으로 보고, 이때부터 부산지역이 신라로 편입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10-11호묘에서 출토된 마주·안교·목심철판피륜등·철제행엽·비·마령 등의 마구류와 종장판복발주와 계갑 등의 갑주는 고구려계통의 문물로서 5세기대 남부지역 지배층의 기마용으로 사용되었음이 명확하게 되었다. 그리고 10호묘에서 출토된 단갑은 4세기대의 비기마용 방어구를 계승한 것으로서 4세기대의 단갑에서 5세기대의 계갑으로의 방어용 무구의 전환과 함께 기승용 마구의 수용 등은 5세기대의 정치적 상황을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하였다.<sup>29)</sup>

이어 복천동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를 소재로 10년 단위의 아주 정치한 편년안이 제시되었다.<sup>30)</sup> 10년 단위의 정치한 편년안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토기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더불어 5세기대의 편년이 가능할 만큼 자료가 풍부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80년대 초에 와질토기론의 제창에 비견할만한 견해가 80년대 후반에 제시되었는데, 그것이 고분의 개념과 발생의 사회적 의미이다. 신경철은 일반대중을 압도하는 영조입지(묘역)에서의 우월성, 경제력의 집중을 보여 주는 매장주체부의 대

29) 鄭澄元·申敬澈, 1983, 『東萊福泉洞古墳群 I』釜山大學校博物館.

30) 申敬澈, 1986, 「新羅土器의 發生에 對하여」 『韓日古代文化의 諸問題』(財)韓日文化交流基金.

규모화 및 부곽의 발생, 이에 부수하여 특정 개인묘로의 무구의 집중화, 그리고 인간과 인간간의 지배와 피지배를 그대로 보여주는 순장의 증거 등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특정 고분을 왕묘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조건을 구비한 왕묘의 출현이 곧 고분의 등장이고, 이는 곧 고대국가로의 진입을 나타내는 표지적 물증으로 간주하였다. 영남지역에 이러한 왕묘가 출현하는 시기를 3세기 후반으로 설정하고, 그 표지적 물적 자료로서 후기와절토기와 목곽묘를 제시하였다.<sup>31)</sup> 이후 새로운 자료 증가에 의해 목곽묘와 와절토기는 2세기 후반에 등장하지만, 4가지 조건을 갖춘 왕묘, 즉 고분은 3세기 후반에 등장하는 견해는 유효성을 지니게 되었다.

#### 4. 1990년대

1990년대는 부산지역의 확대에 수반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의 중심지역이 기장과 강서 등지로의 이동, 도심 내의 소규모 건설공사, 특히 주택개량공사에 수반한 긴급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북천동 고분군의 지속적인 발굴조사 및 고분군의 정비복원과 북천동 고분군의 조사 성과를 체계화하고 향후 연구를 이끌어갈 기관으로서의 북천박물관의 개관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된 생활 및 분묘유적을 소재로 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부산의 삼한·삼국시대를 조명하려는 움직임과 성과가 있었는데, 이의 배후에는 부산시내에 소재한 대

31) 申敬澈, 1995, 「三韓三國統一新羅時代の 釜山」 『釜山市史』 1卷, 釜山市史編纂委員會.

학에서의 적극적인 후진양성 및 전국적인 고고학 관련 학과의 신설과 인재 양성이 가져온 중요한 성과의 하나였다.

이 시기에 진행된 가장 중요한 것은 북천동고분군의 정비 및 이에 따른 제5차 발굴조사, 그리고 북천박물관의 개관이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계획된 부산의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북천동고분군을 정비하여 문화유적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 92년부터 시작되었고, 고분군의 정비사업이 94년부터 시작되었다.

고분군 정비사업에 앞서 정비공사 구간에 대한 조사가 1994년 3월 28일부터 95년 1월 26일까지 1년여 동안 제5차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5차 발굴조사는 정비공사에 의해 파괴되는 부분이 그 대상지역이었다.<sup>32)</sup> 5차 조사에서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 옹관묘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는데, 북천동고분군에도 옹관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초현기의 수혈식석곽묘의 뚜껑에 목재가 사용된 점, 4세기 중엽에 이미 찰갑과 관갑 및 투구 등 무장구가 구비된 점 등의 확인은 큰 성과였다.

위와 같은 성과와 더불어 96년 10월 부산시에 의해 북천박물관이 개관하므로써 북천동고분군의 조사는 물론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의 체계적 관리 및 조사성과를 일반인들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다. 당초 부산시가 계획한 부산매장문화재연구소의 설립이 무산된 것은 향후 부산시내에 존재

32) 宋桂鉉洪潘植·李海蓮, 1995, 『東萊 福泉洞 古墳群 第5次 發掘調査 概報』 『博物館研究論集』 3, 釜山直轄市立博物館.

宋桂鉉·李海蓮, 1997, 『東萊 福泉洞 古墳群 -第5次 發掘調査 99~109號墓』 釜山廣域市立博物館.

李賢珠, 1997, 『東萊福泉洞 93-95號墳』 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하는 유적의 체계적 조사와 관리를 주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린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러나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복천동고분군과 연계한 유적 박물관이 개관함으로써 복천동고분군의 조사내용과 특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삼한·삼국시대 연구와 전시의 특화된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복천박물관에서 연차적으로 기획한 특별전시 및 전시와 연계한 학술심포지움의 테마와 내용은 한국 고고학의 방향점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적정비와 연구기관의 설립 및 연구수행력 등의 세계적 표본으로서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각종 건설공사에 수반하여 중·소규모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복천동고분군 6차조사(1998. 5. 12~6. 18),<sup>33)</sup> 금정구 오륜대고분군 2차 조사(1996. 5. 17~6. 30, 96. 11. 17~97. 3. 14),<sup>34)</sup> 기장군 청강리고분군 조사(1997. 7. 4~11. 1),<sup>35)</sup> 두구동고분(1991. 8),<sup>36)</sup> 초장동고분(1991. 6),<sup>37)</sup> 연산동 토광묘와 화장묘(1989. 11),<sup>38)</sup> 동래패총(1993. 2. 15~3. 6),<sup>39)</sup> 거제지구 택지조성지역 조사(1997. 5. 29~6. 7)<sup>40)</sup> 등이 이루어졌다. 위 유적들의 발굴조사를 통해 새로운 유적의 존재를

33) 宋桂鉉洪潘植·金恩瑩, 1999, 『東萊福泉洞古墳群-第6次發掘調査 141~153號 朝鮮時代 遺構-』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研究叢書 7冊.

34) 홍보식·이현주·동진숙, 1999, 『釜山五倫臺遺蹟』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35) 宋桂鉉李海蓮, 1998, 『기장청강리고분군』釜山廣域市立博物館.

36) 홍보식, 1993, 「杜邱洞 古墳과 遺物」 『博物館研究論集』2, 釜山直轄市立博物館.

37) 이현주, 1993, 「釜山草場洞 古墳 出土遺物」 『博物館研究論集』2, 釜山直轄市立博物館.

38) 송계현, 1993, 「東萊蓮山洞古墳群 收拾遺構 調査報告」 『博物館研究論集』2, 釜山直轄市立博物館.

39) 洪潘植, 1997, 『釜山の 三韓時代 遺蹟과 遺物 I』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洪潘植, 1998, 『釜山の 三韓時代 遺蹟과 遺物 II』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40) 河仁秀, 1997, 「巨堤洞遺蹟」 『釜山の 先史遺蹟과 遺物』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다수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유적이 모두 파괴되어 사라졌지만, 거제동의 점토대토기단계 유적의 존재 확인도 큰 성과였다.

지금까지 복천동고분군의 조사가 4세기 초 이후에 한정되었으나 6차 조사에 의해 현재 법륜사가 위치한 곳까지 고분군임을 확인하였고, 이곳에서 기원후 2세기대의 목관묘와 목곽묘가 다수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6차 조사에 의해 복천동고분군의 형성 시기가 늦어도 기원전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릉 남쪽의 말단부 가까이에서 확인된 목관묘와 목곽묘 및 이 유구들에서 출토된 유물은 구서동 출토품과 더불어 기원직후의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특히 지금까지 불분명 하였던 목관묘에서 목곽묘로의 이행과정 양상을 해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sup>41)</sup> 그리고 2세기 후반의 152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중권문일광경계방제경의 존재를 통해 사로국과 독로국과의 교류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sup>42)</sup>

41) 6차 조사에서 확인된 2세기대의 분묘 중 147(1차보고 시 7호묘임)-152호묘(1차보고 시 12호묘임) 2기를 목곽묘로 보고한 것에 대해 이상울(2002, 「삼한시대 부산지역의 유적과 유물」 『港都釜山』 18,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은 묘광 평면형태와 유물의 출토 위치 등에 근거해 목관묘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이 일대에서 확인된 목관묘는 153호묘와 7차 조사의 158호묘 2기이다. 이 2기의 목관묘는 동일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목곽묘보다 묘광 잔존 깊이가 깊고, 주축방향도 목곽묘와 다르다. 그런데 이상울이 목관묘로 이해한 147호묘는 묘광의 현 깊이와 주축방향 등이 동일 지역의 여타 목곽묘와 동일하며, 묘광이 세장한 것은 길이가 190cm로 성인의 신장 길이를 크게 넘지 않기 때문에 묘광이 세장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목관묘가 아님은 분명하다. 그리고 152호묘는 철검과 방제경의 출토 위치가 목곽 내부의 거의 중앙부 바닥에서 출토되었고, 묘광에서도 목관묘의 요소를 파악할 수 없는데, 출토 유물에 의해 목관묘로 파악한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42) 洪漣植, 1998, 『釜山の 三韓時代 遺蹟과 遺物 II』 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1960년대에 4차례에 걸쳐 조사된 동래패총에 대한 사적지 정비를 위한 한식담장 설치공사가 1993년에 실시되었는데, 이 담장 설치공사에 앞서 부산박물관에서 1993년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20일간 조사하였다. 수습조사였지만, 하나의 pit 내의 십 수여개의 층에서 많은 양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출토된 유물의 시기가 3세기 후반이란 아주 짧은 기간에 한정된 모습이었다. 반세기란 극히 짧은 시기에 깊이가 200cm 이상이나 되는 두터운 층이 퇴적되고, 또 많은 양의 유물이 출토된 점을 통하여 당시 동래패총 주위에 대규모의 마을에 인구가 집중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토사기계 토기가 출토되어 당시 동래패총 집단과 일본 열도의 집단간에 활발한 교류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한·백제권역의 특징적 기종인 이중구연와질단경호가 출토되었는데, 60년대 후반의 조사에서 출토한 압인삼각문와질단경호·구연이 외반하고 목이 직립한 단경호 등과 더불어 당시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낙동강하류 지역의 집단과 마한·백제 집단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확보되었다.<sup>43)</sup>

90년대에 이루어진 일련의 발굴조사 성과와 비견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과는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획득한 다양한 정보를 조작하여 삼한·삼국시대 부산의 문화와 정치체에 대한 정치한 접근 및 주변 정치체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점이다.

첫째는 부산지역의 지배집단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다. 1980년대에 이루어진 복천동고분군과 연산동고분군의 조사성과를

43) 洪漣植, 1998, 『釜山の 三韓時代 遺蹟과 遺物 II』釜山市立博物館 福泉分館.

토대로 전개된 주요한 논쟁의 하나로서 부상하였다.

연산동고분군은 고층의 원형 성토 분구가 있는 부산지역의 유일한 고분군인데, 4·8호분의 조사에 의해 고분군의 성격 일부의 파악은 물론 수혈식석곽묘의 변화과정 구명에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2기의 고분 구조와 출토 유물로 볼 때, 그 시기는 5세기 후반임이 밝혀졌는데, 이 시기가 되면 부산지역의 중심 고분군인 북천동고분군의 고분 조영규칙이 이완되는 시기와 연동되는데, 연산동고분군이 이 시기에 조영되기 시작하는 점과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은 분명하다.

5세기 후반경 신라문화가 확장되는 것과 궤를 같이하여 조영된 연산동 고분군의 조영집단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부산지역이 완전히 신라로 편입되는 5세기 후반에 북천동고분군이 조영된 지역과는 다른 곳에 연산동 고분이란 새로운 고분군이 조영되는 것은 기존의 지배집단인 북천동고분군 조영 집단이 쇠퇴하고, 대신 새로이 등장한 지배집단이 조영한 고분군으로 인식한 견해로 구분된다.<sup>44)</sup>

이와는 달리 연산동고분군의 조영세력이 북천동고분군의 조영세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었다. 연산동고분군은 북천동고분군에 대형묘의 조영 원리에 변화가 오면서, 지금까지 분묘를 조영해 온 북천동구릉이 아닌 온천천 남쪽의 구릉을 지배집단의 새로운 매장공간으로 설정하다고 이해하여 동일 집단에 의한 묘역의 이동으로 파악하였다.<sup>45)</sup>

이 양 견해는 물질자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삼국

44) 申敬澈, 1995, 「三韓三國統一新羅時代の 釜山」 『釜山市史』 1卷, 釜山市史編纂委員會. 1995, 「三韓三國時代の 東萊」 『東萊區誌』 東萊區誌編纂委員會.

45) 崔鍾圭, 1991, 「무덤에서 본 삼한사회의 구조 및 특징」 『韓國古代史論叢』 2,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시대 부산의 동향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둘째는 삼한·삼국시대 부산의 정체성 문제로서, 삼한시대의 부산이 진한문화권에 속하느냐, 아니면 변한문화권에 속하느냐? 그리고 삼국시대에는 가야에 속했느냐 아니면 신라에 속했느냐, 부산이 신라에 편입된 시기가 언제이냐 등에 대한 논쟁이 90년대에 시작되어 2000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1990년대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1980년 북천동고분군 1차 조사에 의해 획득된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부산지역이 5세기 초를 분기점으로 하여 4세기대는 낙동강 서안의 가락국과 정치적 연합을 하여 금관가야연맹을 형성하였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기원후 3세기 후반부터 400년 이전까지 부산지역이 금관가야연맹이었다는 확실한 물질자료로서 창(昌)자형의 주부곽식목곽묘, 외절구연고배·파수부노형토기 등의 토기류와<sup>46)</sup> 북방계 마구,<sup>47)</sup> 종장관 단갑, 통형동기<sup>48)</sup> 등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400년 고구려군의 남정에 의해 타격을 받은 후인 5세기대부터 부산은 신라권으로 편입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 견해에 의하면, 4세기 이전의 삼한시대에도 부산

46) 申敬澈, 1994, 「加耶 初期馬具에 대하여」 『釜大史學』 18, 釜山大學校史學會. 1995, 「金海大星洞東萊福泉洞古墳群 點描」 『釜大史學』 19, 釜山大學校 史學會. 鄭澄元洪潛植, 1994, 「釜山地域의 古墳文化-墓制와 高杯를 중심으로-」 『釜大史學』 18, 釜山大學校史學會.

47) 金斗喆, 1991, 「三國時代 轡의 研究-轡의 系統研究를 中心으로-」 경북대학교 문학석사 학위논문. 1996, 「韓國과 日本의 馬具-兩國間의 編年調律」 嶺南考古學會·九州考古學會 第2會 合同考古學會. 申敬澈, 1994, 「加耶初期馬具에 대하여」 『釜大史學』 18, 釜山大學校史學會

48) 申敬澈, 2004, 「筒形銅器論」 『福岡大學考古學論集-小田富士雄先生退職記念-』 小田富士雄先生退職記念事業會. 鄭澄元洪潛植, 2000, 「筒形銅器研究」 『綜合研究所報』 240, 福岡大學綜合研究所.



은 가야의 전신인 변한문화권에 포함되었다는 견해로 귀결된다.

이에 대해 『삼국사기』 초기기록의 부산편입 기사를 근거로 하고, 여기에 복천동고분군에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신라계 유물을 중시하여 적어도 4세기 전반부터 부산지역이 신라에 편입된 이후 줄곧 신라의 지배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sup>49)</sup> 이 주장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초기기록에 근거하면서 늦어도 4세기 중엽에는 낙동강 동안의 대부분 지역이 사료에 복속되었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물질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되지 않고, 단순히 특징적인 몇몇 신라계 유물이 나온 것에만 착목하여 결론을 내린 것에 불과하였다.

## 5. 2000년대

2000년대 부산지역의 삼한·삼국시대 조사와 연구의 특징은 다음의 몇 가지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학술발굴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각종 공사에 수반한 구제발굴이 매장문화재 조사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학술발굴에서 구제발굴로 바뀐 것이다. 학술발굴에서 구제발굴로의 전이는 비록 부산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규모의 지형변경을 수반한 대단위 규모의 건설공사가 늘어나고, 대규모에 걸친 범위를 조사하기에는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매장문화재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체 등장 of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매장문화재 조사의 주도적인

49) 朱甫暎, 1997, 「4~5세기 釜山地域의 정치적 向방」 『복천동고분군의 재조명』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역할을 한 대학박물관과 국립박물관의 예산확보가 어려운 경제적 여건변화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둘 째, 80~90년대에 부산시로 편입된 강서와 기장지역으로 발굴조사대상지역의 이동이다. 기장 정관지구 신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구제발굴로서 이루어진 정관 가동 및 방곡리유적,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구제발굴조사가 된 지사동유적, 기장 철마면 고촌리의 고촌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구제발굴로서 이루어진 고촌리유적,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구제발굴 조사된 임기리유적, 부산-울산 고속도로 개설 사업에 수반한 기장읍 청강리·대라리유적, 기장 대청중학교 건설공사에 수반하여 조사된 청강리고분군 등이 그 예이다. 특히 기장군 관내에 유적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대규모의 유적 조사가 기장과 강서지역에 집중된 반면, 소규모 조사도 이루어졌다. 연산로터리와 토곡을 연결하기 위한 터널공사에 수반하여 2000년 4월 11일~7월 4일 사이에 연산동고분군 구릉 서편지역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조사에서 5세기 후반~6세기 전반 대의 수혈식석곽묘와 토광묘·옹관묘·횡구식석실묘 등 모두 11기의 중·소형 분묘가 조사되었다.<sup>50)</sup> 이 조사로 연산동고분군의 사면에 5~7세기대에 많은 수의 중·소형 분묘가 조영되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노포IC 개설공사에 수반하여 2005년 2월부터 5월까지 노포동 1114-2번지의 구릉 일대에서 3세기 후반대의 목곽묘 8기가 조사되었는데,<sup>51)</sup> 1985년과 86년에 조

50) 이현주, 2003, 『釜山蓮山洞遺蹟』福泉博物館,

51)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5. 4, 「경부고속도로 노포 IC 건설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집-1차 지도위원회 자료집-」.

사한 노포동분묘군과 같은 시기에 조영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곳에서 분묘군이 확인되므로서 노포동 일대에 삼한 후기의 분묘군이 집중되었을 가능성을 높게 하였다.

지난 해인 2006년에는 복천동고분군의 동편 구릉 일부에 대한 정비계획에 의해 도로 확장에 포함되는 구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8회째의 정식조사이다.<sup>52)</sup> 이 조사(8차 조사)에서 4세기 말~5세기 초의 목곽묘 5기가 확인되었는데, 유구 잔존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종장판단감이 출토되어 갑주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제공되었다.

세 째, 대규모 면적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유적의 전면 또는 전면에 가까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다양한 성격의 유구가 확인되어 고고학적인 연구 범위의 확장을 가져오고 동시에 향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많은 과제가 주어진 점이다.

2000년대에 첫 시작된 대규모의 발굴조사는 강서구 지사동의 지사과학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발굴조사였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의 주거지군과 분묘군·제철유구군, 조선시대의 건물지와 제철유구가 확인되었다.<sup>53)</sup> 삼국시대의 주거지군은 능선 말단부의 충적대지에 위치하며, 50여기 이상으로 이루어졌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장방형·원형 등 다양하고, 대부분의 주거지 내부에 소토가 채워져 있었다. 주거지군의 남쪽에 제철과 관련된 원형의 체련로와 장방형의 용해로, 다량의 슬래그가 출토되었다. 조사단에서는 주거지군과 동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시기는 4세기대로

52) 복천박물관, 2006, 「복천동고분군 동편(8차)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

53) 東亞大學校 博物館, 2005. 4, 「釜山科學地方產業團地 造成敷地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2次) 概要」.

추정하고 있다.

분묘군은 주거지군으로부터 동쪽으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200여기 이상의 분묘가 확인되었는데, 목곽묘·수혈식석곽묘·횡구식석실묘 등의 매장시설이 확인되었다. 매장주체시설은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 분묘 중 목곽묘는 주거지군과 같은 시기의 것으로 파악하여 주거지군을 형성한 사람들의 분묘군으로 설정하였다. 이 발굴조사는 생곡동 가달고분군의 조사에 이어 강서지역에서 조사된 중요한 유적이자, 4~5세기대의 취락과 분묘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기장 정관신도시 개발공사에 수반하여 2003년 5월부터 2005년 9월까지 2년여에 걸쳐 방곡리유적과 가동유적이 울산 대학교 박물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방곡리유적에서 목관묘 11기, 토광묘 6기, 옹관묘 10기 등 27기의 삼한시대 분묘가 조사되므로서 그동안 공백지대로 남아있던 울산과 부산 사이의 삼한시대 실상의 구명에 중요한 자료가 확보되었다. 목관묘와 토광묘에서 두형토기·와질단경호와 주머니호·소형완 등이 출토되었고, 판상철부·철부·철검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특히 1호 토광묘에서 청동제검파와 검파두식이 착장된 철검이 출토된 점도 큰 수확이었다. 옹관묘는 모두 함구식으로서, 삼각형점토대구연의 무문토기옹을 사용하였다.<sup>54)</sup> 분묘구조와 출토된 유물 등으로 볼 때, 분묘군이 조성된 시기는 기원전후로서, 이 시기 정관분지 일대에 거주하던 집단의 분묘군임을 확인하였으나, 주거 구역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애

54) 양상현·김영민 외, 2007, 『부산 정관신도시 개발지구내 유적 機長 芳谷里遺蹟』 蔚山 大學校 博物館.

석하다.

방곡리유적으로부터 북쪽으로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가동유적은 청동기시대 주거지 5동, 삼국시대 주거지 160동, 굴립주 건물지 86동, 폐기유구·하도·분묘 15기 등 266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sup>55)</sup>

삼국시대의 수혈주거지는 평면형태가 장방형·방형·타원형·원형·부정형 등 다양한데, 방형이 다수를 차지한다. 주거지간에 중복이 많이 되었는데, 출토 유물의 분석과 더불어 주거지의 구조 변천을 해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일부 주거지는 증개축의 흔적도 확인되어 주거사용의 내면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이 수혈 주거지 내부에는 부뚜막이 있는 온돌시설과 부뚜막 가까이에서 시루와 장동옹 등이 출토되고, 일부는 부뚜막에서 支脚이 출토되었는데, 이들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삼국시대 주거의 내부구조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굴립주 건물지는 4柱·6柱·9柱 등과 규모가 아주 큰 굴립주 건물지 등 다양하다. 이 굴립주 건물들 중 일부에서 상태가 양호한 목재 기둥 하부가 출토되었는데, 기둥 아래에 돌 또는 목재를 받친 예도 확인되었다. 이 굴립주 건물지에서 확인된 목재 기둥을 통해 삼국시대의 굴립주 건물의 복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폐기유구와 저습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목기류가 출토되었는데, 완제품과 미완성품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목제신발은 지금까지 출토된 사례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가동유적의 저습지에서 양호한 상태로 출토되어 삼국시대 신발구조에 대

55) 울산대학교 박물관, 2004, 8, 「機長 佳洞遺蹟-지도위원회 자료-」. 2005, 2, 「기장 방곡리, 가동유적-현장설명회 자료-」. 2006, 『遺蹟과 遺物』 울산대학교 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도록.

한 연구과제를 남겼다. 저습지와 폐기유구에는 목기류 이외에 다양한 씨앗류가 출토되었다. 복숭아씨·박씨·오이씨·도꼬마리 씨앗·탄화곡물 등이 출토되었는데, 이 곡물류는 당시의 식생활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목기류와 씨앗류의 수종 및 종자 분석을 통해 당시의 자연생태 복원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당시의 생활 모습과 자연환경을 복원한 고대 마을사의 구상도 가능하게 되었다.

분묘군은 주거군의 남서쪽에 입지하는데, 일부는 굴립주 건물지를 파괴하여, 굴립주 건물지와 분묘의 선후관계가 확인되었다. 분묘는 수혈식석곽·횡구식석실·횡혈식석실 등이 있는데, 잔존상태가 좋지 않아 분묘의 정확한 구조 파악은 어려웠다. 횡구식석과 횡혈식석실은 대부분 1~2회의 추가매장이 되었다. 분묘의 조영 시기는 6세기 후반~7세기 전반이었다.

기장 가동유적의 발굴조사에 의해 주거구조, 수혈주거와 굴립주 건물과의 역할과 관계, 삼국시대의 마을 구조 및 단위, 인구수, 식생활사, 그리고 당시의 자연환경 복원 등에 대한 다양하면서도 귀중한 정보가 제공된 것은 매우 중요하다.

2005년 5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철마고촌리의 주택개발사업지구 내에서는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특히 삼국시대의 유구로는 구상유구·자갈이 부서진 도로, 수 십동의 굴립주 건물지, 연속된 부정형 수혈, 원지 등이 확인되었다.<sup>56)</sup> 굴립주 건물의 경우 4주식·6주식·9주식 등 다양하지만, 원상태로 잔존된 목제기둥의 확인은 향후 굴립주 건물의 복원에 중요

56) 慶南文化財研究院, 2006, 9, 「釜山 古村 宅地開發事業地區內 文化遺蹟(I地區) 發掘調査 指導委員會議 資料」. 2007, 4, 「釜山 古村 宅地開發事業地區內 文化遺蹟 I地區 發掘調査 2次 現場說明會 資料」.

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주 짧은 길이지만, 도로유구의 확인은 삼국시대 부산의 도로구조 연구는 물론 동래에서 기장으로 이어지는 도로망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삼국시대의 지방 촌락 구조 연구에 일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4세기 후반, 5세기 후반, 6~7세기대의 다양한 유물들이 확인되었다. 구상유구에서 초현기의 연유도기가 출토되었는데, 왕경 이외 지역의 생활유구에서 처음 출토된 것이다. 이는 신라에서 연유도기가 생산되기 시작한 시기부터 지방의 중요지역에 보급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평가할 수 있다.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개설 구간의 기장 대라리유적의 조사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유적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성과만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발굴조사사에 남을 만한 중요한 유적임에 틀림없다. 대라리유적은 2005년 6월부터 시작되었고, 유적은 4개의 구릉으로 구분되는데, 남쪽의 I 지구에는 4~5세기대의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로 이루어진 고분군이 조성되었고, II 지구는 고분군과 제사유구가 위치하고, III 지구 전체와 IV 지구의 일부에는 수혈주거지·고상건물지·저장공·용도 불명의 수혈 등 일상 생활과 관련된 유구가 집중되고, 가장 북쪽의 IV 지구 정상부 주위에 3종의 목책시설로 된 제사유구가 조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sup>57)</sup> 이들 4개 지구의 구릉에 조성된 유구들은 4~6세기대의 한정된 시기의 복합유적으로서 이 시기의 대라리유적을 남긴 집단의 일상생활과 저장, 그리고 제사와 분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시의

57) 慶南文化財研究院, 2006. 4, 「釜山-蔚山 高速道路 建設區間內(2工區) 淸江·大羅里遺蹟 發掘調查 現場說明會 資料(1次)」. 2007. 5, 「釜山-蔚山 高速道路 建設區間內(2工區) 淸江·大羅里遺蹟 發掘調查 現場說明會 資料(3次)」.

생활사 전체를 복원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고고자료를 통한 부산의 삼한·삼국시대의 정치와 사회구조의 복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부산지역은 2세기 후반부터 일부의 물질자료에서 김해지역과 유사성을 보인 이후 3세기 후반대에 들어오면 그 유사도가 급격히 증가되고 4세기대에 들어오면 다양한 물질자료를 공유하는 모습이 현저하다. 창자형 주부곽식목곽묘의 공유, 파수부노형토기, 외절구연고배의 생산과 분배, 통형동기의 공동 소유 등이 나타나는데, 이는 부산과 김해지역의 집단이 금관가야연맹을 형성한 명확한 물적자료이었다. 김해의 대성동고분군 조영집단과 부산의 복천동고분군 조영집단으로 상징되는 양 지역의 수장집단을 정점으로 한 금관가야연맹을 형성하였는데, 북방·중국·열도계 등의 외래유물이 보다 집중된 김해의 대성동 집단이 복천동고분군 조영집단보다 우위에 있었음도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논리는 4세기대 부산지역 금관가야권이라는 앞 시기의 견해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었다.<sup>5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자는 복천동고분군에서 출토된 부분적인 사로(신라)계 유물을 근거로 삼한시기부터 부산지역이 사로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제시하였다.<sup>59)</sup> 이에 대해 3세기 후반 또는 4세기 중엽경에 이미 부산지역이 사로에 편입되었다는 신라사 전공자의 편견과 이해 부족에

58) 홍보식, 2001, 「고고학으로 본 금관가야」 『고고학으로 본 가야』 한국고고학회.

59) 尹溫植, 2002, 「영남 지방 원삼국시대 土器 [樣式]論의 제기」 『嶺南考古學』 31, 嶺南考古學會.

金大煥, 2003a, 「4-5세기 낙동강하류역의 地域集團」 『신라고분의 지역상』 第12回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2003b, 「부산지역 금관가야설의 검토」 『嶺南考古學』 33, 嶺南考古學會.



대한 면밀한 비판이 제기되어 적어도 4세기대까지는 부산이 사료에 편입되지 않았음이 여러 물질자료를 통해 논증되었다.<sup>60)</sup>

삼국시대 부산지역의 정치적 향방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은 물질자료에 대한 정치한 편년체계 수립과 객관적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이에 대한 정치한 편년체계가 수립되고, 그 변화양상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의하면 5세기 1/4분기에 이 지역의 특징적 토기인 외절구연고배와 파수부대부완 등의 신라계 토기가 일시 공존한 후 외절구연고배는 사라지고 신라계 토기 요소가 증가하면서 격심한 변화를 보이다가 2/4분기부터 신라계 토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안정되어 가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일어나는 전기가야에서 후기가야로의 전환기를 초래한 역동성의 출발지가 부산과 김해지역임이 논증되었다.<sup>61)</sup>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된 부산-김해지역과 경주-울산지역의 물질자료를 한 곳에 모아 금관가야와 신라의 실체와 부산지역의 정체성을 밝히려는 전시와 학술세미나가 복천박물관에서 실시되었다. 소기의 성과를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양대권역에서 출토된 물질자료를 한 곳에 모아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비교검토는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60) 부산지역의 금관가야연맹과 신라의 지배 시기에 대한 비판은 아래 김두철의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2003, 「부산지역 고분문화의 추이-가야에서 신라로-」 『港都釜山』 19,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61) 홍보식, 2007, 「토기로 본 가야고분의 전환기적 양상」 『가야고분의 전환기적 양상』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 Ⅲ. 과제와 전망

이상으로 해방 이전부터 올해까지의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한 유적(유구·유물) 조사와 연구를 10년 단위별로 그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보았다. 정리 결과, 부산지역의 삼한·삼국시대 조사와 연구는 70년대에 첫발을 내디뎠고, 80년 초 복천동 고분군의 발굴조사로 본 궤도에 올랐음을 알 수 있었다. 80년대와 90년대는 이 시기에 조사된 유적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통해 집단관계와 주변지역과의 관계, 물질자료의 편년체계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발굴조사 대상지가 기장과 강서지역으로 이동하고, 대규모의 면적을 대상으로 한 전면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과는 다른 다양한 자료들이 확인되어 향후 해명해야 할 다양한 과제들을 남기고 있다.

향후 보다 다양한 자료의 지속적인 발굴도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획득한 정보를 종합·정리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삼한·삼국시대의 다양한 부면-주거구조·면적, 단위가족의 구성원 수와 취락의 인구 수, 주거 내부의 활용, 취사방식 및 취사도구와 식기·저장용기의 구성, 저장시설과 방식, 취락의 규모와 구조 및 공간 활용, 목기·금속기·토기 등의 생산과 공급관계, 분묘의 구조와 부장품 구성 및 변화, 주거공간과 분묘공간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 제사공간 및 제사공간의 활용, 일상생활 속의 제사내용과 형태, 일상제사와 분묘제사와의 비교 검토를 통한 사회구조 및 변화의 추이와 생업경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물질자료를 활용하여 부산지역의 정치체와 주변 정치체와의 관계 해명 및 부산지역 집단들의 근·원거리 교역의 실태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지역에는 논·밭 등의 생산유적의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산지역은 현재까지 생산유적에 대한 조사가 전무한데,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된 삼한·삼국시대의 체계적인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자료집성과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루어져야하고,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직되어야 한다.